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황 현 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문학평론가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은 물론 음력 8월15일에 지내는 명절이다. 우리에게는 음력 낱자를 짚어 쇠는 명절이 아직도 여럿 남아 있다. 설과 대보름이 그렇고, 단오와 백중이 그렇다. 이 명절들이 이름만으로도 존속하는 한 음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향이 서남해안 지방인 우리 집은 언제나 설날 그믐날에 차례상을 차려 왔다. 그 설날이나 그믐이 늘 음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지만, 어찌다 양력설을 싹 뻗은 것이 있었다. 내가 대학생일 때, 배운 지식들의 권에 못 이겨 신정 과제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어머니가 차례상을 준비하던 중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으셨다. “오늘 차례 못 지낸다. 어찌 설날그믐

음력과 양력

에 달이 뜬단 말이나.” 양력과 음력의 개념과 차이에 관해 설명할 계제가 아니었다. 어떤 설명도 설날의 밤하늘이 지녀야 하는 유현한 기운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만들어 줄 수는 없었다.

바닷가 사람들인 우리 가족에게 시간은 늘 썰물 밀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 시간의 리듬은 곧 달의 숨결이며, 우주의 율려(律呂)이다. 이 박자를 짚어 비도 오고 바람도 분다. 적어도 바닷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사리 때인 보름이나 그믐에는 날이 맑고 그 사이에 있는 조금 때는 비가 온다. 흘러가는 시간을 균일하게 분할해 놓은 것이 달력이지만 거기에는 천지의 리듬도 함께 표시된다.

보름에는 만월이 되고 삭망에는 달이 없다.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태양의 변화야말로 간만의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듬이지만 그것은 강한 권력과는 같기에 리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법칙처럼 여겨진다. 사실상 양력에 해당하는 24절기는 책에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배열되었지만 달력의 씨실이 되는 것은 월과 일이다. 농사는 절기에 따라 짓고 제사는 날짜에 따라 지낸다. 양력에는 공식적인 삶이 있지만 음력에는 내밀한 삶이 있다. 아마도 ‘양력 설’이 어머니를 실망시킨

데는 그믐밤의 중천에 달이 뒹다는 사실만은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 시간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는 삶의 내밀한 기억이었을 것이다. 조금의 썰물에 너른 갯벌에서 게를 잡고 조개를 주웠던, 삭망과 보름이면 상방에 메를 지어 옮겼던, 옥토끼와 계수나무에 관해 몽상했던, 이슬 내리는 밤에 곡식 여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 그 잃어버린 기억들이 시간의 주를 속에 숨어 있다.

한 인간에게서 이 무의식의 기억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는 이 기억에 의해 인간이라는 층에 속할 수 있다. 그는 묻혀 있는 기억의 역사 속에 있다. 설날에, 좀 더 넓게는 명절에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시간은 균일하게 분할된 시간 속에서 질이 다른 시간이다. 그것은 기억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시간이다. 생태취페리의 ‘어린왕자’에서 여우가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든다’는 의례의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공식적인 삶과 내밀한 삶 사이에 깊은 단절을 겪었던 한국인들에게서는 국가가 만들어 주려 하는 연례행사의 시간과 개인들의 무의식이 떠받드

는 의례의 시간이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것이 태양력 속에 공공연하게나마 은밀하게 숨어 있는 태음력으로 상징된다고 해야겠다. 겉치레와 속생각 사이의 온갖 분열이 모두 거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마다 자기 안에 의식되지 않은 자기를 또 하나 가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이면서 자기인 줄 모르는 자기, 자기라고 인정하기 싫은 자기를 자기 안에 품고 산다. 이 자기 안의 타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의지를 훼손하지만, 많은 창조자들의 예에서 보듯이 때로는 의식과 의지가 이를 수 없는 것을 이 타자가 이루어 내기도 한다.

이 점은 국가와 같은 거대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석한 독재’가 정연하고 잘 계산된 가능성의 가치를 내걸고 실패할 때, 반항하는 사회적 타자들의 들쭉날쭉한 정신은 명석한 정신의 계산 밖으로 밀려났던 무한대의 가능성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 미래의 희망이 사회적 주제보다 사회적 타자에게서 기대되는 이유도,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칼럼



김 현 우 선덕사 주지

미안마의 인종 갈등

가슴에 꼭 한 봉지 사게 된다. 맛과 향도 훌륭하지만, 르완다에서 왔다는 이유가 더 크다. 르완다는 약 20년 전까지 심각한 내전을 겪은 나라다. 다수인 후투족과 소수의 투치족의 갈등으로 공식 통계로 150만, 비공식 통계로는 2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이 갈등의 배후에는 서방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가 있다. 독일이 이어 르완다를 지배한 벨기에에는 소수 민족인 투치족을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민족간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민족이 독립운동으로 결집하는 것을 막고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시절 차별에 시달린 후투족에게 잠재된 분노의 씨앗은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지금 르완다는 유희충돌의 상처를 극복하고 화합과 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 경제 개혁과 올바른 정치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 갈등의 이름인 후투와 투치는 르완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금지어가 되었다.

지금 미안마의 리카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안마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버마족을 중심으로 한 정부군이 이슬람 신앙을 가진 소수민족

로hing야족을 공공연히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다. 로hing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이 되었다. 일부는 불교와 이슬람을 공격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리카인 지역의 문제는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르완다와 마찬가지로 열강의 식민지 정책이 탄생시킨 역사적 비극이다. 영국은 소수 민족 로hing야족을 미안마로 이주시켜 식민지 지배 도구로 사용했다. 심지어 로hing야족을 무장시켜 버마족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다. ‘일본보다 일본의 앞잡이들이 더 우리를 괴롭혔다.’고 하듯이, 미안마 사람들에게는 영국보다 로hing야족이 더 현실적인 고통을 주는 식민지 지배자였던 것이다. 미안마가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되자 그동안 억압과 소외에 시달린 버마족의 분노는 로hing야족에게 향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에 “로hing야족은 단지 그들의 문화와 이슬람 신앙대로 살기 원한다는 이유로 고통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통찰 없이 종교 갈등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힘이 없어 잠잠한 것이 아니라요. 어찌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비록 어리석

은 이가 화를 낼지라도 지혜로운 이는 그와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어리석은 이가 화를 내고 욕을 할지라도 지혜로운 이는 능히 참아내어 자신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게 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이런 이치를 모르기에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힘만 믿고 화내며 욕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능히 참음으로써 언제나 승리합니다.”(기세경)

미안마는 인구의 90%가 불교인이며, 오랜 불교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불교국가라고 불린다. 그리고 많은 불교인들은 불교가 비폭력 평화 전통을 유지해온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지금 미안마에서 벌어지는 로hing야족 탄압은 불교도로서 매우 침담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다. 갈등 속에 불교가 보이지 않지 않지 않지 않다. 업이 만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면 더 나은 역사를 향한 업의 전환을 어떻게 할 지 살피는 것이 불교적인 자세이다. 화해와 평화를 전향해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이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일꾼 주인공은 누구보다 불교인이어야 한다. 어디 미안마만 그러하라.

기 고

조선대의 역사와 새 희망



백 수 인 조선대 국어교육과교수

오는 29일은 조선대가 개교한 지 71주년 되는 날이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조선대는 우리나라 200여 개가 넘는 4년제 대학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대학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그 설립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조선대는 우리 민족의 근대 고등 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한동안 한반도에는 대학(학부)이 없었다. 이에 선각자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우리 민간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이 그것이었다. 1922년 이상재, 송진우, 한용운 등 47인이 회동하여 ‘조선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발기한 것이 시초였다.

그러나 이 운동이 구체화되지 일제는 설립 위원과 회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

아 노골적으로 탄압하여 결국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대로 광주로 옮겨졌다. 현준호, 김성수, 김병로, 윤정하 등이 호남은행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추진하였던 ‘호남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당시는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통해 철권통치를 굳혀가는 때여서 구체적인 안조차 이룩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 일제는 1924년에 서울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개교한다.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에 유일한 학부가 설치된 대학이 일제의 총독부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광복 이전까지의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대학(학부)이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았으나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였다. 우리 민족의 후예들에게 시급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46년에 일제가 세운 경성제대를 제외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 3개의 대학(학부)이 새로이 설립되어 개교한다. ‘국립서울대학교’, ‘김일성대학’ 그리고 ‘조선대학’이 그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던 미군정 당국은 일제 때부터 있었

던 기존의 경성제국대학, 경성의전·치전(嶺轉)·법전(法轉), 경성고공(高工), 경성고상(高商), 경성고농(高農) 등을 통합하는 ‘국립대학안’을 발표하고 ‘국립 서울대’를 설립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년여 동안 제 구실을 할 수 없었다.

이 시기 북쪽에서는 종합대학 창립사업이 전 주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46년 7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대학을 설치하는 결의’를 채택, 법령 40호로 발표했다. ‘김일성대학’은 기존에 있던 ‘평양외과전문’과 ‘대동공업전문’ 등을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학부로 편입시켜서 설립한 것이다.

서울대는 미군정청이, 김일성대학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의 주체였다. 그러나 조선대학은 달랐다. 그 설립주체가 관이 아닌 민간이며, 개인이 아닌 순수한 우리 백성 대중들이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좌절되었던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이 1946년 4월 광주에서 ‘조선대학설립회’가 1946년 8월 조선대학설립동지회가 광주서중학교 강당에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설립동지회는 해방 조국 건설의 신념에 불타는 지식인, 관리, 지주로 부터 머슴과 촌부애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 대중이 참여한 모임이었다. 설립동지회원 자격은 교육력, 빈부

의 격차를 넘어서 호남지역 전 대중에게 완전 개방되었다. 7만2000여 회원들이 조선대학의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민족 국가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은 그 유례가 없는 규모로 결집되었다. 설립 주체의 대중적 성격과 규모로 인하여 조선대학고는 명실상부한 민립대학으로 출발한 것이다. 서울대와 김일성대에 기존의 사실과 조직 등을 통합하여 이룩한 것이라면 조선대는 아무 것도 없는 맨땅에 창립한 새로운 대학이다. 또한 대학 명칭이 ‘광주’, ‘전남’, ‘호남’ 등이 아닌 ‘조선’인 데에도 그 의미가 깊다. 1946년 역사적으로 출발한 세 대학의 개교 날짜는 조선대 9월 29일, 김일성대 10월 1일, 서울대 10월 15일로 조선대가 제일 빨랐다.

요즘 조선대 이사회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조선대가 나아갈 방향은 무너지 설립 정신의 회복이다. 오늘날의 조선대 문제는 온갖 비리로 1988년 물러났던 구경영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다시 복귀시키면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대는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구경영진 세력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장차 ‘국민공익형이사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당초 설립주체였던 국민에게 그 경영권을 되돌려 주는 것이 정답이다.

社 說

장애 학생들 ‘원거리 통학’ 대책 서둘러야

얼마 전 ‘무릎 꿇은 장애인 엄마’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바 있다. 장애아 학부모 20여 명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당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나간 이 영상은 장애인 부모의 아픔과 함께 장애인 학교 하나를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들은 불편한 몸으로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고교 수는 67개교로 이중 특수학교가 설치된 학교 수는 전체의 35.82%인 24개교에 53학급이다.(특수학급은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별도 학급이다)

구별로 보면 특히 남구의 경우 모두

17개 고교가 있으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두 곳뿐이다. 이 때문에 남구 장애 학생들은 집에서 최장 40여 분 거리에 있는 광산구 등의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는 데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장애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부족하지만 시교육청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학부모 사이에선 해당 지역 초·중학교 특수학급 수만큼 학교도 특수학급 수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10개 있다면 해당 지역 고교에도 10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청과 사립학교 측은 몸도 불편한 한데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서둘러 특수학급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학부모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함도 물론이다.

죽음마져 앞당기는 열악한 농촌 의료 환경

전남 군 지역 사망자 가운데 40%가량이 적절한 치료나 예방을 하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중 보건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밝힌 ‘지역 낙탈에 따른 회피 가능 사망률 격차와 합의’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회피 가능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지수는 주거 환경의 낙후 정도와 교육 수준, 거주 형태 등을 점수화해, 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전남 시군의 박탈지수는 신안군이 15.8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고흥군 15.28, 함평군 14.82, 보성군 14.71, 곡성군 14.00으로 전국 상위 10위 내 지역에 포함됐다. 연구팀이 이런 박탈지수를 지역별 ‘회피 가능 사망률’(예방 가능 사망률+치료 가능 사망률)과 비교한 결과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의

회피 가능 사망률은 최고 45.7%, 낮은 지역은 최저 36%로 9.7%포인트나 격차가 났다. 회피 가능 사망은 75세 이전 사망(75세 이전 사망) 중 적절한 치료나 조기 검진, 정부의 건강 정책 등이 선행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고흥군의 회피 가능 사망률은 45.7%, 보성군 45%, 진도군 44.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국내 전체 회피 가능 사망률이 36.7%(인구 10만 명당 총 사망 377.1명 중 138.5명)였던 데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별 빈부와 주거 환경, 의료 환경 격차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져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낙후도 서러운데 피할 수 있는 죽음마저 일찍 맞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전남 농어촌 지역의 공중 보건 정책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18 계엄군으로 참여한 11공수 여단 62세대 4지역대 1중대 김효겸 하사과 면담한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도청 앞 집단 발포, 주남마을 학살 사건과 암매장 그리고 형제 간의 비극적 사연이 담겨 있다.

주남마을 양민 학살은 1980년 5월 23일 이곳에 매복하고 있던 11공수부대원이 화순으로 가는 미니버스를 집중 사격해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군 18명 중 15명이 현장에 사망한 사건이다. 생존자는 홍금숙(당시 춘태여고 1학년)

8 묘역에 묻힐 수 있었다. 국방부 특조위가 헬기 사격 조사에 나서고 5·18 재단이 암매장지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37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고 암매장지를 찾기로 쉽지 않아 보인다. 5·18 일주일 뒤 11공수 부대원들이 다시 광주로 출동하고 7공수와 20사단 수색대가 암매장지 뒷수습에 나섰다. 철저히 제거 은폐했다. 관련 당사자의 의로운 증언과 현장 목격자들의 제보만이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재만 편집부 부국장 jkyou@

어느 형제의 비극

기재했기 때문이다. 채 씨는 2002년에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 5·18 묘역에 묻힐 수 있었다.

국방부 특조위가 헬기 사격 조사에 나서고 5·18 재단이 암매장지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37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고 암매장지를 찾기로 쉽지 않아 보인다. 5·18 일주일 뒤 11공수 부대원들이 다시 광주로 출동하고 7공수와 20사단 수색대가 암매장지 뒷수습에 나섰다. 철저히 제거 은폐했다. 관련 당사자의 의로운 증언과 현장 목격자들의 제보만이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재만 편집부 부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